

복 있는 사람은(시편 1: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오늘도 복 받으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이처럼 복은 모든 인생들이 새로운 날 인사를 나눌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이러한 복 있는 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자, 오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악인이고 의인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인의 모습을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악인을 찾을 기준이 모호하다니 말입니다. 참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그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과 바라봐야 할 대상을 제시해 주십니다.

2절,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기준은 명확해지고 우리는 악인들과는 다른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말씀 중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필 때 중심을 잘 살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작 외모를 볼 뿐이고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의인의 길을 걷는 복으로 충만한 2025년, 이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악인은 바람의 나는 저와 같다고 말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람의 나는 저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현란하게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바람이 멎으면 결국 가라앉고 맙니다. 그 현란함은 잠깐이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갈아서 비록 정적이고 잠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지금은 멈춰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 또한 형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사람의 지혜는 바람의 저와 같아서 유한하며 시간이 되면 멈춰 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에는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므로 그 분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충만한 “복 있는 자”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NEW YEAR

2025

설 가정 예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예배의 부름 말은이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같이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 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절 땅돌아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시편 1:1-6(구약 805) 다같이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설교 "복 있는 사람은" 설교자

찬양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같이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악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인사 다같이

※ 가족 간에 칭찬과 격려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눈 후에 중보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안내

1. 예배드리기 가장 편안한 시간을 미리 정하십시오.
2.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차분히 가족들을 기다리십시오.
3. 순서를 미리 배분하십시오. 모든 순서를 배정하셔도 좋습니다.
4. QR코드를 이용하여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5.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